

# 초등학생의 우울감과 학업성적 사이의 관련성 연구

박현주<sup>1\*</sup>

<sup>1</sup>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간호학과

##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chieve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Hyunju Park<sup>1\*</sup>

<sup>1</sup>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Campus, Department of Nursing

**요약**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아동의 학업성적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학업성적과 우울감 경험 사이에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단면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며, 우울감 경험은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로, 학업성적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성적으로 측정하였다. 1,048명의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과 우울감 경험 사이에 spearman correlation은 남학생 -0.31, 여학생 -0.37로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학년, 가족의 경제수준, 자아존중감을 보정한 상태에서도 성적이 높은 그룹의 우울감 경험의 교차비는 남학생 0.34, 여학생 0.36으로 성적이 낮은 그룹보다 우울감 경험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낮은 초등학생은 향후 우울증 선별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Several studies regarding the effects of academic achievement on mental health problems have been conducted in adolescents but no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refore,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chool achievement on depression in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048, 5th to 6th elementary students in Seoul, Korea. The Spearman correlations between school achievement and depression were -0.31 for boys and -0.37 for girls ( $p < 0.001$  for both). After controlling for grader, the family economic status and self-esteem, higher achiever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low risk for depression in boys and girl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ower school achievement is associated with a depressive mood in Korean elementary students. Therefore, students with lower academic performance are a risk group for depression.

**Key Words** : Depression, School achievement, Elementary school student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일생동안 정신건강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기간이 악성 신생물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보다도 훨씬 긴 기간으로 나타나[1], 정신건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의 경우 우울은 주요 정신건강문제 중의 하나이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와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우리나라 12-14세 아동 전체의 약 8.0%가 우울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동일 연령대의 여학생은 11.3%가 우울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2],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우울감 경험률이 더욱 증가하여, 2007년에 실시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41.3%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 사업임(No:2012004750)

\*Corresponding Author : Hyunju Park(Kangwon National Univ.)

Tel: +82-33-250-8879 email: hpark@kangwon.ac.kr

Received June 26, 2014

Revised August 6, 2014

Accepted October 10, 2014

[3]. 따라서 청소년기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조기에 우울 증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울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파악해야함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여러 논문들에서 언급되어졌다[4,5].

이들의 자살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뉴스를 통해 학업성적 비관으로 인한 우울을 원인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학업성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매우 적다.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성적과 우울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즉, 히스패닉계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성적과 우울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6], 교사가 응답한 10-11세 여학생들의 성적과 우울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 그러나 성적과 우울사이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 역시 교사가 응답한 11-19세 학생들의 성적과 우울 수준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으며[8], 또 다른 연구에서도 8-9세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모두 성적과 우울은 음의관계이나 유의하지 않았다[7]. 또한 6학년에서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적과 우울은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다[9]. 따라서 성적과 우울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물지만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석사 학위 논문 1건에서 대구지역 중학교 1학년 245명을 대상으로 성적과 우울사이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는데, 여학생에서만 성적과 CDI (Children' Depression Inventory)로 측정된 우울 점수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소외감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우울로 이어진다고 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11]. 따라서 국내 연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업성적과 우울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연구자들은 우울과 학업성적은 상호관련성이 있을

을 지적하였다[8]. 이는 학업성적이 기대에 못미치게 되면 이로 인해 우울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우울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학업성적이 낮아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을 독립변수로,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목표중심이론(goal-oriented model)을 바탕으로 하였다. 즉, 목표중심이론은 목표(학업성취)를 추구함에 있어서 실패 혹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경험이 우울에 대한 위협성을 높인다는 것이다[12].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목표중심이론을 이용하여 학업성취와 우울관계를 살펴보았으며[13,14], 학업성적이 우울의 위협요인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또한 학업성적과 우울사이의 관련성이 여학생에서만 유의하다고 보고한 단면연구[7,10]와 종단연구결과[15]를 바탕으로 남·여 초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여 초등학생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학업성적과 우울감 경험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여 초등학생에서 CDI로 측정된 우울감의 경험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인구학적 특성(학년, 가족의 경제수준) 및 자아 존중감을 고려하였을때,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학업성적이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남·여 초등학생 별로 분석한다.

## 2. 본론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업성적이 남·여 초등학생의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단면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여 초등학생의 우울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명단을 확보한 후, 서울시 11개 교육구청별로 각각 1개의 학교를 편의 추출하였다. 해당 학교의 보건교사에

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총 11개 학교에서 5학년과 6학년 각각 2개반 씩을 편의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IRB 심의번호: 2012-001)를 거쳐 실시하였다. 2012년 11월 중에 설문지를 조사대상 학교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연구자가 학교의 보건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였으며, 보건교사는 당해 학교의 교장에게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학생은 보건교사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서면과 구두로 설명을 들었으며, 본 설문조사는 맞고 틀리는 시험이 아니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응답할 것을 알려주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2년 11월에 발송하여 조사하였으며, 1,320부를 발송하여 1,216부가 수거되었고(약 92.1%의 회수율), 이 중 자료가 부실한 16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048명의 자료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2.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조사지는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학업성적, 우울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가족의 경제수준을 포함하며, 자가보고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연령은 출생 연도와 올해 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를 이용하여 만 나이를 산출하였다. 가족의 경제수준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우리 집의 경제상태로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s Self-Esteem Scale[1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을 부여하여, 총합(4-40점)을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 alpha 값은 본 연구에서 남학생 .76, 여학생 .78로 조사되었다.

우울감은 소아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17]. 소아우울척도는 성인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18] 8-13세 연령의 아동에 맞추어 변형시킨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신의 기분상태를 기술하는 각 문항에서 3개의 문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도구이다. 첫 번째 문장은 0점, 두 번째 문장은 1점, 세 번째 문장은 2점으로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며, 0-13점은 정

상, 14-16점은 가벼운 우울, 17-19점은 중간 정도의 우울, 20점 이상은 심각한 우울을 나타낸다. 본 도구는 한국어 아동에 적합하도록 표준화되었으며, 표준화 당시 Cronbach alpha 값은 .88로 보고되었고[19],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91, 여학생 .92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학업성적으로 '상', '중', '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우울감, 학업성적의 수준 파악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학업성적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과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변량 분석은 우울감과, 학업수준 사이에 spearman correlation을 살펴보았으며, 다변량 분석을 위해서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I은 학업성적 변수만을 투입하였으며, Model II는 일반적 특성(학년, 가족의 경제수준)을 추가하였고, Model III는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학년 사이에 상관계수가 .85로 조사되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므로, 모델에는 학년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모델의 적합성은 Model fit statistics 중 하나인 -2LogL 값으로 살펴보았다. -2Log L 값은 작을 수록 적합한 모델로 판단한다[20].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변량 분석 모델은 모두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보다 작고, Tolerance는 0.1 이상으로 조사되어 다중공선성이 없는 적절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은 535명(51.0%), 여학생은 513명(49.0%)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남학생은 5학년 267명(49.9%), 6학년 268명(50.1%), 가정경제수준 상 146명(27.3%), 중 341명(63.7%), 하 48명(9.0%)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은 5학년 259명(50.5%), 6학년 254명(49.5%), 가정경제수준 상 118명(23.0%), 중 366명(71.4%), 하 29명(5.7%)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의 경우 남학생은 11.84세(SD: 0.58), 여학생은 11.82세(SD: 0.58)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은 남학생 30.83(SD: 5.28), 여학생 30.07(SD: 5.32)로 조사되었다.

### 3.2 학업성적과 우울

학업성적은 남학생의 경우 상 326명(60.9%), 중 138명(25.8%), 하 77명(13.3%)으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은 상 260명(50.7%), 중 171명(33.3%), 하 82명(16.0%)으로 나타났다[Table 2]. 우울감 점수는 남학생 평균 8.14점(SD: 7.40), 여학생 평균 10.18점(SD: 8.41)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cut-point에 따라 분류하면, 남학생 중 경한 우울 27명(5.0%), 중간정도 우울 23명(4.3%), 심각한 우울 48명(9.0%)으로 조사되었고, 여학생 중 경한 우울 49명(9.6%), 중간정도 우울 40명(7.8%), 심각한 우울 73명(14.2%)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별로 학업성적과 우울감 점수의 관련성을 spearman correlation으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에서  $-0.31(p<.001)$ , 여학생에서  $-0.37(p<.001)$ 로 나타나 성적이 높은 그룹에서 우울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학업성적이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적이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남학생과 여학생별로, 각각 3개의 모델을 구축하여 살펴보았다. Model I에서는 학업성적과 우울감의 경험과의 관계만을 포함하였고, Model II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보정하였는데, 일반적 특성 중 학년과 연령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r=0.85, p<.001$ ),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학년과 가족의 경제수준만을 포함하였다. Model III에서는 Model II에 포함된 변수 외에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여 보정하였다. 모든 모델에서 우울감 경험유무는 정상과 우울경험이 있는 경우(경한 우울, 중간정도 우울, 심각한 우울 모두 포함)로 구분하였다.

우선, 남학생의 경우, Model I에서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보다 “중”과 “상”에서 우울감 경험이 각각 0.23배( $p<.001$ ), 0.15배( $p<.001$ )로 나타나, 성적이 높은 경우 우울감 경험이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Model II에서는 학업성적이 “중”과 “상”에서의 교차비가 “하”인 경우보다 0.27과 0.21로 Model I에서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for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Boys and Girls

Variable	Classification	Boys	Girls	Total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Grade	5th	267 (49.9)	239 (50.5)	526 (50.2)
	6th	268 (50.1)	254 (49.5)	522 (49.8)
	High	146 (27.3)	118 (23.0)	264 (25.2)
Family Economic Status	Middle	341 (63.7)	366 (71.4)	707 (67.5)
	Low	48 (9.0)	29 (5.7)	77 (7.3)
Age	(years)	11.84±0.58	11.82±0.58	11.83±0.58
Self-esteem		30.83±5.28	30.07±5.32	30.46±5.31

Boys=535; Girls=513; Total=1,048.

[Table 2] School Achievement and Depression in Boys and Girls

Variable	Classification	Boys		Girls	
		n (%) or M±SD		n (%) or M±SD	
School Achievement	Low	77 (13.3)		82 (16.0)	
	Middle	138 (25.8)		171 (33.3)	
	High	326 (60.9)		260 (50.7)	
	Normal	437 (81.7)		351 (68.4)	
Depression	Mild	27 (5.0)		49 (9.6)	
	Moderate	23 (4.3)		40 (7.8)	
	Severe	48 (9.0)		73 (14.2)	
		8.14±7.40		10.18±8.41	
		Spearman		Spearman	
		Correlation	$p$	Correlation	$p$
School Achievement and Depression		-0.31	<.001	-0.37	<.001

[Table 3] Effect of School Achievement on Depression in Boys

Variable	Classification	Model I (-2Log L=468.54)			Model II (-2Log L=444.77)			Model III (-2Log L=332.44)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School Achievement	Low	1			1			1		
	Middle	0.23	0.12-0.44	<.001	0.27	0.14-0.53	<.001	0.37	0.17-0.79	.010
	High	0.15	0.09-0.27	<.001	0.21	0.11-0.38	<.001	0.34	0.17-0.68	.002
Grade	5th				1			1		
	6th				1.08	0.67-1.742	.763	1.03	0.60-1.79	.909
Family Economic Status	Low				1			1		
	Middle				0.25	0.13-0.48	<.001	0.37	0.16-0.83	.017
	High				0.13	0.06-0.31	<.001	0.20	0.07-0.54	.002
Self-esteem							0.73	0.68-0.79	<.001	

[Table 4] Effect of School Achievement on Depression in Girls

Variable	Classification	Model I (-2Log L=577.61)			Model II (-2Log L=546.51)			Model III (-2Log L=440.58)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School Achievement	Low	1			1			1		
	Middle	0.24	0.14-0.42	<.001	0.26	0.14-0.46	<.001	0.33	0.17-0.64	.001
	High	0.12	0.07-0.21	<.001	0.15	0.09-0.27	<.001	0.36	0.19-0.70	.002
Grade	5th				1			1		
	6th				1.39	0.92-2.10	.122	1.30	0.82-2.08	.270
Family Economic Status	Low				1			1		
	Middle				0.17	0.07-0.45	<.001	0.29	0.10-0.86	.026
	High				0.07	0.03-0.22	<.001	0.15	0.04-0.50	.002
Self-esteem							0.77	0.72-0.82	<.001	

all<.001), 5학년에 비해 6학년의 우울감 경험의 교차비가 1.08로 조사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763$ ). 가족의 경제수준은 “하”에 비해 “중”과 “상”에서 교차비가 각각 0.25, 0.13으로 나타나( $p$  for all<.001)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 경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Model III에서는 학업성적이 “중”과 “상”에서의 교차비가 “하”인 경우보다 0.37( $p=.010$ )과 0.34( $p=.002$ )로 Model II에서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학년에 비해 6학년의 우울감 경험의 교차비가 1.03으로 조사되었으나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p=.909$ ). 가족의 경제수준은 “하”에 비해 “중”과 “상”에서 교차비가 각각 0.37( $p=.017$ ), 0.20( $p=.002$ )으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 경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울감 경험에 대한 교차비가 0.73( $p<.001$ )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점수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우울감 경험의 위험이 0.73배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개의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통계값인 -2Log L이 Model I에서는 468.54, Model II에서는 444.77, Model III에서는 332.44로 나타나 Model III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Model I에서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보다 “중”과 “상”에서 우울감 경험이 각각 0.24배 ( $p<.001$ ), 0.12배( $p<.001$ )로 나타나, 성적이 높은 경우 우울감 경험이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일 반적 특성을 보정한 Model II에서는 학업성적이 “중”과 “상”에서의 교차비가 “하”인 경우보다 0.26과 0.15로 Model I에서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for all<.001), 5학년에 비해 6학년의 우울감 경험의 교차비가 1.39로 조사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122$ ). 가족의 경제수준은 “하”에 비해 “중”과 “상”에서 교차비가 각각 0.17( $p<.001$ ), 0.07( $p<.001$ )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 경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Model III에서는 학업성적이 “중”과 “상”에서의 교차비가 “하”인 경우보다 0.33( $p=.001$ )과 0.36( $p=.002$ )으로 Model II에서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학년에 비해 6학년의 우울감 경험의 교차비가 1.30으로 조사되었으나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p=.270$ ). 가족의 경제수준은 “하”에 비해 “중”과 “상”에서 교차비가 각각 0.29( $p=.026$ ), 0.15( $p=.002$ )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 경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아존중감의 경

우울감 경험에 대한 교차비가 0.77( $p < .001$ )로 나타나, 자아존중감 점수가 1점씩 증가할때마다 우울감 경험의 위험이 0.77배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개의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통계값인  $-2\text{Log L}$ 이 Model I에서는 577.61, Model II에서는 546.51, Model III에서는 440.58로 나타나 Model III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울감의 경험수준을 파악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을 고려한 상태에서 학업성적이 우울감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우울증 경험의 수준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경한 우울 5.0%, 중간정도 우울 4.3%, 심각한 우울 9.0%, 여학생의 경우 경한 우울 9.6%, 중간정도 우울 7.8%, 심각한 우울 14.2%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CDI 평균 점수는 8.14, 여학생은 10.18로 조사되었다. 이는 호주의 5·6학년 CDI 평균 7.79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21],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대구)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남학생 평균 CDI 9.5, 여학생 평균 9.0과 비교해보아도[22] 본 연구에 포함된 여학생들의 우울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DI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한 비율이 12-14세 아동의 8.0%라고 보고한 수치와 비교할 때[2], 본 연구에서 심각한 우울 경험율이 남학생 9.0%, 여학생 14.2%이므로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감 감소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과 우울감 경험과의 관계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spearman correlation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성적이 높은 그룹에서 우울증 경험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이 낮은 초등학생의 경우 우울증 경험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히스패닉계 중학

생[6]과 핀란드 중학생[23], 우리나라 여자 중학생[10] 및 남녀 고등학생[11], 남녀 중·고등학생[24]에서 성적과 우울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는 비슷한 결과이다.

또한 이는 목표중심이론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우울 발생 기전을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학업성취라는 목표에 상당히 몰입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즉, 자신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낮다고 생각하게되면 우울감 경험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반면,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고되었던 성별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몇몇 기존 연구에서는 여학생에서만 학업 성적과 우울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였으나 [7,10,15,], 본 연구에서는 남·여 초등학생 모두 학업성적이 높다고 보고한 그룹에서 우울경험이 낮은 것으로 보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적에 민감하여 성적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성적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23]. 특히, 낮은 학업성적이 지속된다면 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진입하는 동안 우울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기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성적이 낮은 초등학생은 우울증을 겪을 잠재적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우울증 선별검사 실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학업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업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통계변수 중 우울감 경험과 유의한 관계로 나타난 것은 가족의 경제상태와 자아존중감이었는데, 가족의 경제상태가 높은 그룹에서 우울감 경험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4,25].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 경험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5,26].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연구이므로 학업성적과 우울 경험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정지을 수 없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8], 학업성적이 낮아 이에 대한 실망이나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로 인해 우울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울이 지속되면 자기비하(self-criticism)를 하게되며 이로인해 학업성적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

고한 선행연구도 있으므로[27] 향후 중단연구를 통해 두 변수 사이에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해볼 필요 있다. 두 번째 제한점으로는 학업성적을 객관적인 점수가 아닌 자가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시험점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향후 보다 객관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초등학교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의 지역차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학생에서 학업성적과 우울경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녀 초등학교모두에서 학업성적이 낮은 그룹의 우울경험 위험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초등학교학생의 학업성적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학업성취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재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보건 관련 전문가들은 우울증 선별 시에 학업성적이 낮은 초등학교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H. Remschmidt, M. Belfer, *Mental Health Care for Children and Adolescent Worldwide: A Review*, *World Psychiatry*, 4(3), pp. 147-153, 2005.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Statistic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V-3)*. p. 33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Ministry of Education. *The 3rd(2007)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urvey Statistics*. p. 18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 [4] E. J. Kang, *Korean Children's Mental Health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28, pp. 60-72, 2007.
- [5] H. Sung, B. Lubin, J. Yi,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Youth Depression Adjective Check List (Y-DACL)*, *Adolescence*, 27(107), pp. 527-533, 1992.
- [6] S. A. Alva, R. de Los Reyes, *Psychosocial Stress, Internalized Symptom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Hispanic Adolescents*, *Journal Adolescent Research*, 14(3), pp.343-358. 1999.  
DOI: <http://dx.doi.org/10.1177/0743558499143004>
- [7] N. D. Feshbach, S. Feshbach, *Affective Process and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58(5), pp. 1335-1347, 1987.  
DOI: <http://dx.doi.org/10.2307/1130625>
- [8] A. Q. Briga, J. W. Doran, S. B. Newell, E. M. Morrison, B. Baretti, B. D. Robbins, *Relationships Between Problem Behavior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s: The Unique Role of Attention Problem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10(4), pp. 233-240, 2002.  
DOI: <http://dx.doi.org/10.1177/10634266020100040501>
- [9] O. Malinauskiene, R. Vosylis, Z. Rit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Problem Behavior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Young Adolescent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15, pp. 3415-3421, 2011.  
DOI: <http://dx.doi.org/10.1016/j.sbspro.2011.04.311>
- [10] Y. J.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School Performance in Early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pp. 20-24, 2007.
- [11] E. Lee,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4), pp. 576-85, 2007.
- [12] L. Y. Abramson, G. I. Metalsky, L. B. Alloy,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2), pp. 358-372, 1989.  
DOI: <http://dx.doi.org/10.1037/0033-295X.96.2.358>
- [13] B. M. Dykman, *Integrating Cognitive and Motivational Factors in Depression: Initial Test of A Goal-orientation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pp. 139-158, 1988.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4.1.139>
- [14] G. D. Sideridis, *Goal Orient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Depression: Evidence in Favor of A Revised Goal Theory Framework*,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3), pp. 366-375, 2005.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97.3.366>
- [15] A. M. Undheim, M. S. Sund, *School Factors and The Emergence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 Norwegian Adolescents,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4(8), pp. 446-453, 2005.  
DOI: <http://dx.doi.org/10.1007/s00787-005-0496-1>
- [16] N.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7] M. Kovacs,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Self-rated Depression Scale for School-aged Youngsters*, Unpublished Manuscript,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1983.
- [18] A. T. Beck,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 New York, NY, Harper & Row, 1967.
- [19] S. C. Cho, Y. S. Lee,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29, pp. 943-956, 1990.
- [20] J. Cohen, P. Cohen, S. G. West, L. S. Aiken,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sup>rd</sup>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3.
- [21] M. McCabe, L. Ricciardelli, S. Banfield, Depressive Symptom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Preadolescent Children, *Depression research and treatment*, 2011.  
DOI: <http://dx.doi.org/10.1155/2011/548034>
- [22] Y. S. Kim, M. J. Lee, Y. S. Suh, D. H. Kim,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als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4, pp. 206-212, 2013.  
DOI: <http://dx.doi.org/10.4082/kjfm.2013.34.3.206>
- [23] S. A. Frojd, E. S. Nissinen, M. U. Pelkonen, M. J. Marttunen, A. M. Koivisto, R. Kaltiala-Heino, Depression and School Performance in Middle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Adolescence*, 31(4), pp. 485-498, 2008.  
DOI: <http://dx.doi.org/10.1016/j.adolescence.2007.08.006>
- [24] H. Y. Park, J. Heo, S. V. Subramanian, I. Kawachi, J. Oh,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Adolescent Depression in South Korea: A Multilevel Analysis, *PloS one*, 7(10), e47025, 2012.  
DOI: <http://dx.doi.org/10.1371/journal.pone.0047025>
- [25] H. C. Lin, T. C. Tang, J. Y. Yen, C. H. Ko, C. H. Huang, S. C. Liu, C. F. Yen, Depression and Its Association with Self-esteem, Family, Peer and School Factors in A Population of 9586 Adolescents in Southern Taiwa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2(4), pp. 412-420, 2008.  
DOI: <http://dx.doi.org/10.1111/j.1440-1819.2008.01820.x>
- [26] X. Shang, D. Wang, J. Wang, X. Hu, S. Du, Y. Li, Prevalence and Socioeconomic Status Correlation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ldren Living in Urban Beijing, *North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and Science*, 3(3), pp. 153-159, 2010.  
DOI: <http://dx.doi.org/10.7156/v3i3p153>
- [27] G. Shahar, C. C. Henrich, A. Winokur, S. J. Blatt, G. P. Kupermine, B. J. Leadbeater, Self-criticism and Depressive Symptoms Interact To Predict Middle School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1), pp. 147-155, 2006.  
DOI: <http://dx.doi.org/10.1002/jclp.20210>

**박 현 주(Hyunju Park)**

[정회원]



- 2001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7년 12월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2013년 8월 :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 및 청소년 건강증진